

오피니언

데스크 시각

김주정



민주당이 손학규씨를 당 대표로 뽑은 지난 일요일 오후, 강운태 광주시장 측이 내놓은 '축하 메시지'가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은 도출되지 않았다. 당원들과 30~40%가 호남출신인 대의원들은 오히려 한나라당 출신으로 경기도지사서 지낸 손학규 전 대표를 당의 새로운 간판으로 선택했다.

"...광주는 민주당의 어머니입니다. 지금 광주는 수십 년 동안 오직 민주당이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광주의 아들 딸 중에서 대통령이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은 도출되지 않았다. 당원들과 30~40%가 호남출신인 대의원들은 오히려 한나라당 출신으로 경기도지사서 지낸 손학규 전 대표를 당의 새로운 간판으로 선택했다.

손학규 대표가 답할 차례다

은 도출되지 않았다. 당원들과 30~40%가 호남출신인 대의원들은 오히려 한나라당 출신으로 경기도지사서 지낸 손학규 전 대표를 당의 새로운 간판으로 선택했다.

은 도출되지 않았다. 당원들과 30~40%가 호남출신인 대의원들은 오히려 한나라당 출신으로 경기도지사서 지낸 손학규 전 대표를 당의 새로운 간판으로 선택했다.

강운태 시장의 속셈?

강 시장은 뒤늦게 "보좌진이 쓴 것을 직접 손보지 못해 오해가 있었다." "광주의 아들 딸"은 당연히 "민주당의 아들 딸"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은 도출되지 않았다. 당원들과 30~40%가 호남출신인 대의원들은 오히려 한나라당 출신으로 경기도지사서 지낸 손학규 전 대표를 당의 새로운 간판으로 선택했다.

니면 민주당 대권후보가 될 수 없다는 말이나?'라는 논란이 끼어들 틈은 없었다. 강 시장의 민감한 언급이 해프닝으로 묻힐 수 있었던 이유다.

그렇다. 물론 것이다. 이런 종류의 논란은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12월 대통령선거로 이어지는 정치적 격변기에 언제든지 돌출할 수 있는 폭발성을 지니고 있다.

에서 살아남으려는 사리사욕 때문이었다. 사실 이런 시도는 양보라기보다는 건전한 견제로 지역발전 촉진을 정치적 '이종교배'에 가까웠다.

야권 대통합이 살 길

이번 전당대회의 목소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호남발 '무현 돌풍'이라는 정치적 신화를 창조했던 8년 전보다는 한 단계 높은 차원의 결단기 필요하다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다.

손학규 대표도 집무 첫날부터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겠다"고 했다. 자신의 뼈부터 깎겠다는 다짐으로 들린다.

손학규 대표도 집무 첫날부터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겠다"고 했다.

은펜칼럼

박행순



동경에 있는 과학미래관(Mirairkan)을 다녀왔다. 미래관의 영문명은 'National Museum of Emerging Science and Innovation'으로서 직역하면 '첨단 과학과 혁신 국립박물관'이다.

이 스케줄에 따라 지정 공간에서 분야별 시연이나 해설을 하는데 관람객과 계속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퇴직 교수와 연구소 출신의 300여명 자원봉사자들은 각각의 맡은 곳에서 관람객들의 체험을 지원했다.

미래관의 표어는 "과학을 알라. 세계가 변한다"이다. 최신과학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과학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이나 피상적 이해 차원을 넘어서는 강

일본의 과학미래관

다. 우리 과학관의 주 관람객이 어린이인 반면, 미래관은 설립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었다.

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과학기술들이 가져 올 미래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며 선하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

내년 말 개관을 앞두고 있는 국립광주과학관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빛을 주제로 많은 체험 위주의 과학전시물들이 벌써부터 관심을 끌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아시안문화중심 도시 광주의 국립과학관이 과학문화가 꽃피는 행복한 공간, 성공적인 과학관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젊은 과학기술인들을 과학해설사로 미리 양성해야한다.

〈전남대 약학대학 교수 (사)국제과학문화협회 대표〉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쓰는 코너입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리를 지급합니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김경양



집사람이 매일 아침 "대한민국 만세!"를 외친다. 40년이 훌쩍 넘는 세월 동안 아침 9시 30분에 남편이 집을 나서기만 기다렸던 사람인데, 이제는 8시만 되면 부딪스런 남편이 집에서 사라지니 만세가 절로 나오나 보다.

나름 복잡한 생활 탓에 건강에 소홀해져, 작년 이 무렵 신경통이 찾아왔다. 아무리 나이먹어 찾아오는 손님이라도 만 자기만한 병도 반갑지 않은 병. 병원에 가서 얻어온 답은 '수영'이었다.

지 못해 고심 끝에 지휘봉을 들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찾아왔다. 지휘봉을 잡은 느낌이 너무나 새로웠던 것이다.

수강생들의 얼굴 하나 하나를 돌러보았다. 이 분들이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그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못하고 나이 60이 넘어야 하고 싶

노후의 행복

종일 타운 구경을 했던 기억이 있다.

1년 가깝게 꼬박꼬박 건강타운 수영장에 다니자 신경통의 고통이 점차 물러나면서, 이제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젊어서부터 하고자 했던 것, 마음은 간절했지만 시간이 없어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생각이 간절했다.

매일같이 건강타운에서 재미있게 놀고 있으면서 귀찮은 일이 벌어졌다. 오페라단을 이끌고 지휘했던 경험을 아는 사람들이 이곳 노인건강타운 개설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합창반 지휘자 역할을 맡아 달라는 것이다.

〈광주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이사장-조선대 음악교육과 명예교수〉

던 노래를, 연주를 하고 싶어 이렇게 모이신 분들이구나. 스스로를 격상시키며 이들의 지휘자가 되기를 마땅찮아 했던 오만함에 미안해져 고개가 숙여졌다.

노인건강타운에 모인 사람들은 지적수준도, 성격도, 은퇴 전 직업도 다르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며 모두가 '어우러진다'.

전국의 예식장에서 결혼식이 치러질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될 테니, 이 얼마나 큰 낭

예식장 남은 음식 불우 이웃 도우면 어떨까

최근 시내 자원봉사단체에서 나눠주는 식사를 타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도 보였고, 동네 교회에서 한 끼 식사를 얻기 위해 교회 식당을 기웃거리는 사람들도 보았다.

그런데 예식장에서는 매주 주말마다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쓰레기통으로 고스란히 버려진다.

비인가. 그러나 현재는 음식도 남아서 버리고 있으니 이제라도 그것을 합리적으로 모아 불우이웃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비록 상에 올랐던 것이라든가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음식은 정성스럽게 모아 불우한 이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어떨까.

▲진보라·목포시 복민동

시설

국가 지원 못받는 5·18 국가유공자라니

5·18 민주 유공자들이 국가보훈처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생활에 어려움이 크다고 한다. 5·18 당시 부상이나 고문 후유증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지만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유공자들의 생활상태 등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국가보훈처장에게 보상의 내용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5·18 유공자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일반 국가 유공자와는 달리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과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금 대신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후관리 없이 유공자 예우만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시불이라는 게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없을 뿐더러 고문이나 부상 후유증 등으로 일을 할 수 없어 경제난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과거 국가가 부상자에게 일시불로 쥐어준 보상금은 '입 막음' 성격이 강했다. 5·18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보다는 국민 화합이란 정치적 논리를 내세워 일시불 지급과 이틀만의 유공자라는 '담금'으로 얼버무렸던 게 사실이다.

5·18에 대한 송고한 뜻과 정신을 새긴다면 그 주체인 부상자들에게 국가유공자에 걸맞은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당사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해 5·18 부상자들에게 추가적인 경제 지원과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지원을 하는 것만이 국가의 책무이자 도리다.

광주시 산하기관장 사직 강요 적절치 않다

최근 광주시가 산하 일부 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 대표에 사직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시는 다음달 중 대표직을 연임하고 있거나 정무적인 성격이 짙은 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 대표 2~3명을 권고사직 등을 통해 교체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된 기관장에 대해 일방적으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임기보장은 기관장 및 임원의 임면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특히 단체장의 교체와 상관없이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책임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런 일방적인 사직권고가 단

체장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되는 논공행상 인사, 정실인사를 위한 사전정치 작업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벌써 시청 안팎에서는 시 산하 기관장에 지난 지방선거 때 강운태 시장 캠프에서 편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공공기관의 수장 자리는 단체장의 코드나 철학과 무관하고 경영 능력이나 전문성, 조직관리 능력이 요구되는 자리 대부분이다. 기관장의 전문성이나 능력이 고려되지 않고 단순히 이전 단체장 아래에서 일했던 사람이라는 이유로 사퇴시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강 시장은 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을 정치계임 승자가 마땅히 누리는 전리품으로 여기는 생각이 버려야 할 것이다.

無等鼓

고대 스웨덴의 도시 읍살라(Uppsala)를 지배하는 왕은 9년의 재임기간이 끝나면 살해되도록 정해져 있었다. 10명의 아들을 둔 '운 왕'은 9년 후엔 죽어야 할 자신의 운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최고의 신 오딘(Odin)에게 자신의 장남을 제물로 바칠 것을 제안한다.

고대 유럽과 아프리카의 왕위 계승제도를 들여다보면, 읍살라 처럼 왕권을 제한했던 도시, 또는 국가가 적지 않다. 고대 그리스의 크레타에서는 왕이 9년 동안 도시를 통치했지만, 통치기간이 끝나가면 '풍요의 분배자'로서 그의 권능은 사라진 것으로 여겨졌다.

읍살라의 왕



스파르타에서는 8년마다 달 밝은 밤에 민선의원들이 모여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이때 하늘을 가르며 흘러가는 유성(流星)이 보이면 왕이 신을 모욕한 것으로 결론짓고 왕권을 정지시켰다.

고대세계에서조차 다 살 수 없었지만 이제는 너무 늙어 어린아이처럼 유유병을 앓아야 할 지경에 이른다. 드디어 열 번째 아들의 차례가 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모든 스웨덴 백성들이 반대하고 나선다.

고대세계에서조차 다 살 수 없었지만 이제는 너무 늙어 어린아이처럼 유유병을 앓아야 할 지경에 이른다. 드디어 열 번째 아들의 차례가 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모든 스웨덴 백성들이 반대하고 나선다.

복한이 부자 3대 세습에 돌입했다고 한다. 도대체 누가 이들에게 그 같은 권한을 부여한 것일까? /홍행기 정경부차장redplane@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details and subscription rates.